

영화 속 분서(焚書)행위에 대한 기호학적 분석

- 영화 『책 도둑』과 『화씨 451』을 중심으로 -

아주대학교
불어불문학과
201421654
김지수

- 목차 -

부분	내용	쪽 번호
I. 서론	- 들어가는 말 - 보고서의 목적과 방향	2-4
II. 본론	1. 영화 『책 도둑』에 나타나는 분서	4-6
	2. 영화 『화씨 451』에 나타나는 분서	6-7
	3. 공통점 도출	8
III. 결론	- 한국 사회에 대한 시사점 - 맺는 말	9
IV. 참고문헌		10

I. 서론

“바라옵건대 모든 문학과 시(詩)와 서(書), 그리고 제자백가의 저작물을 몰수하여 태우십시오.”

진나라 승상이자 통일제국 수립의 일등공신인 이사가 시황제에게 간언한 내용이다.¹⁾ 사사로운 학문이 법과 질서를 어지럽히고 국가의 태평과 안전을 해친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진시황은 이를 받아들여 시행했고, 그 유명한 분서갱유(焚書坑儒) 사건이 발생하게 된다. 정치적 목적을 위해 사상과 학문을 말살하는 정책의 역사가 시작된 것이다.

주지하듯, 분서갱유는 그저 2200년 전에 머물러 있는 옛 역사가 아니다. 정치적 목적의 분서(焚書) 사건들은 크고 작은 형태로 이후에도 수없이, 그 시기와 장소를 막론하고 발생해 왔다. 뿐만 아니라 얼마든지 다양한 형태로 재발할 수 있는 역사다. 본고는 기호학적 방법을 통해 분서 행위를 둘러싼 ‘행위 주체’들을 중심으로 그 의미들을 분석해 보고, 분석 결과가 우리 사회에서는 또 어떤 의미를 갖는지 논의할 것이다. 분석 대상은 글로 서술된 역사적 텍스트보다는, 영화적으로 구성된 텍스트로 정했다. 역사서는 보통 ‘사건’을 중심으로 기술되나, 영화는 행위의 주체인 ‘인물’에 초점을 두고 서사를 진행시키기 때문에 보다 적절한 분석 대상이라고 생각했다.

이에 따라 본고에서 분석하기로 결정한 영화는 두 편이다. 먼저 다루게 될 『책 도둑(The Book Thief, 2014)』은 마커스 주삭(Markus Zusak) 원작의 동명 소설(2005)을 바탕으로 제작된 영화로, 나치가 기승을 부리던 1938년 독일의 모습을 어린 소녀 리젤 메밍거의 시선을 통해 조명하고 있다. 영화의 배경에 앞선 1933년, 수상의 자리에 있던 히틀러는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여 공산주의자 및 나치에 반대하는 자들을 제거한다. 같은 해 5월 베를린 베벨 광장(Bebelplatz)에서는 세계적인 고전과 문학 서적들이 공개적으로 불태워지는데, 이를 시작으로 이른바 ‘공공 분서(öffentliche Bücherverbrennung)’는 이후 12년간 자행되어 독일 전역에 서만 1억 권에 달하는 책이 화염 속으로 사라진다. 진나라의 분서갱유 이래 2천 년에 걸친 인류의 문화적 진보는 이렇게 허무하게 그 빛을 잃었다. 이 영화는 나치의 분서가 활발하게 진행 중에 있던 시점을 보여준다.

두 번째 영화는 프랑수아 트뤼포(Francois Truffaut)의 1966년작 『화씨 451(Fahrenheit 451)』이다. 『화성 연대기』를 쓴 환상 문학 작가 레이 브래드버리(Ray D. Bradbury)의 원작 소설(1953)을 영화화했다. 본 작품은 이미 일어난 특정 사건이 아닌, 미래 사회의 ‘일상화’된 분서행위를 주제로 하고 있다. 책이 금기시되는 가까운 미래를 배경으로, 전체주의가 지배하는 미래의 모습을 하나의 디스토피아로 제시한다. 주인공 몬태그는 책을 불태우는 ‘Fireman²⁾’을 직업으로 가진 인물로, 일련의 사건을 통한 그의 각성과 태도 변화를 따라가는 것이 영화의 주된 흐름이다.

1) 사마천, 『사기열전』, 연변대학 고적연구소 역, 서해문집, 2006, 316쪽.

2) 원래는 ‘불을 끄는 일을 직업으로 하는 사람’의 의미로 현행 한국어에서 ‘소방관’으로 주로 번역되나, 본 영화와 원작 소설에서는 반대로 ‘불을 지르는 일을 하는 사람’의 의미를 갖는다. 원작자의 언어유희적 의도를 살리기 위해 본 보고서에서는 ‘fireman’이라는 영문 표기를 사용하기로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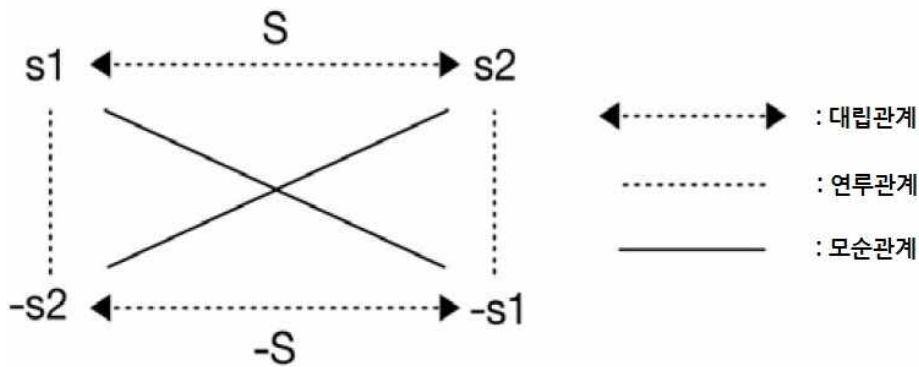
위 두 작품 『책 도둑』과 『화씨 451』의 관점은 시기적으로 서로 엇갈린다. 『책 도둑』이 21세기의 관점에서 과거의 역사를 회고하는 반면, 『화씨 451』은 과거의 관점³⁾에서 미래를 예견한다. 이런 점에서, 둘 중 어느 하나만 분석하는 것보다는 두 작품을 비교 분석하는 것이 나름의 통시적 공통성을 도출해냄으로써 분석 결과에 설득력을 부여하는 데 의의가 있는 작업이라고 보았다.

위 작품들의 의미 분석에 있어서는, 프랑스의 언어학자 그레마스(Algirdas J. Greimas)가 제시한 기호학적 분석 방법⁴⁾을 채택하기로 했다. 그레마스는 의미의 체계란 의미가 생성되는 과정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보면서, 의미 생성의 단계를 심층, 표층, 담화의 세 개 층위로 나눈 ‘의미생성행로’를 제안했는데, 표로 제시하면 오른쪽과 같다.

생성행로			
구조		통사적요소	의미적요소
기호-서사적 구조	심층	기본적 통사론	기본적 의미론
	표층	표층서사통사론	서사의미론
담화구조	담화층	담화적 통사론 담화화↓ 행위화 시간화 공간화	담화적 의미론 주제화 형상화

[표1] 그레마스, 의미생성행로

이러한 의미론은 심층의 추상적인 단계에서 표층을 거쳐, 담화구조에 이르기까지 구체화되는 담화의 의미 생성 과정을 보여준다. 이 중 심층구조는 개인과 사회, 기호학적 대상의 존재 조건들을 정의하는 층위다. 이는 의미의 가장 본질적인 조건을 보여주는 부분으로, 그레마스는 소쉬르로부터 시작된 구조주의적 전통인 ‘양항대립’을 토대로 고안한 ‘기호사각형’을 제시한다. 이는 의소(sème)라는 의미의 최소 단위로 표현되는 항들 사이의 관계(대립관계, 모순관계, 연루관계)를 통해 의미를 기술하는 틀이다. 아래는 기호사각형의 도식⁵⁾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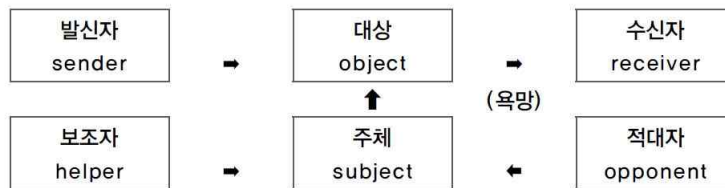


[그림1] 그레마스, 기호사각형

이 보고서에서는 각 영화 속의 분석 행위를 둘러싼 의미 구조를 그레마스의 기호사각형을 통해 간략하게 분석하는 작업을 진행했다.

3) 『화씨 451』의 원작은 나치가 몰락한 1945년으로부터 8년 후 발표되었으며, 이는 미국 사회에서 매카시즘이 열풍을 일으키던 시기와 맞물린다.
 4) 송효섭 저, 『인문학, 기호학을 말하다』, 이숲, 2013, 141-163쪽.
 5) 마정미 외, 「정치적 UCC 콘텐츠에 대한 기호학적 연구」의 그림2를 발췌, 수정함.

심층의 의미는 담화로 발현되기에 앞서 표층구조를 거친다. 이는 심층구조보다는 구체적 이나, 담화 층위의 완전한 실재적 구체성에 도달하지는 못한 중간 단계다. 그레마스는 표층구조를 ‘행위소(actant) 모델’을 제시하여 설명하는데, 행위소는 심층의 의소들로는 표현하지 못한 ‘누구’의 문제가 드러난다. 주체와 대상을 중심으로 발송자와 수령자, 원조자와 적대자의 대립적 의미항들을 설정하여 이들 사이의 관계를 살피는 모형이다. 이러한 행위소 모델을 통해서 영화에서 분서 행위를 하는 인물 혹은 집단에 포커스를 맞춰 이를 주체로 설정하고, 주변 행위소들과의 관계를 살펴보도록 한다.



[그림 2] 그레마스, 행위소 모델. 그림은 각주 5)의 논문에서 발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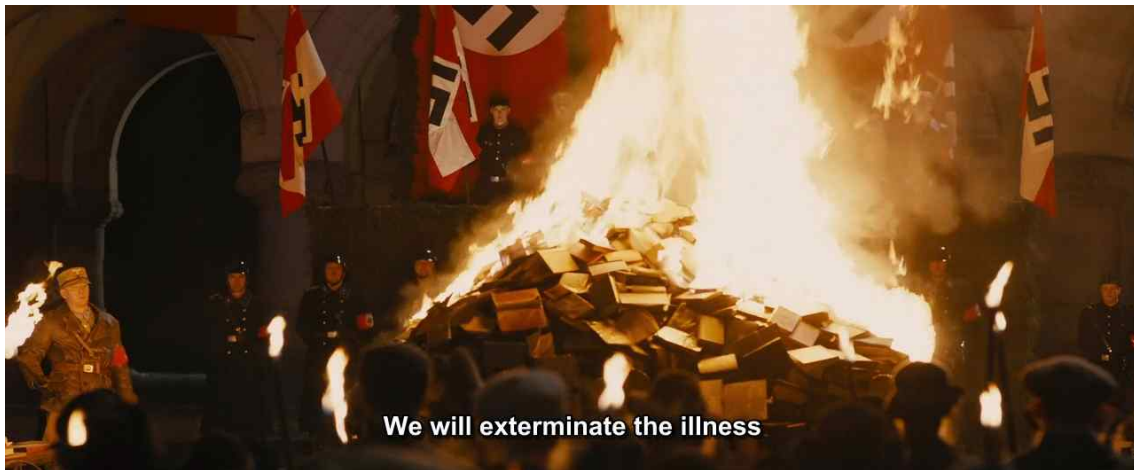
그레마스 이론에 따르면, 주제는 전체 텍스트에서 총체적으로 찾아내는 형이상학적 관념이 아닌, 텍스트 곳곳에서 경험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분석 과정은 영화 속의 ‘분서 장면’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했으며, 본 보고서에서는 영화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와 메시지는 다루지 않았음을 미리 밝힌다. 두 편의 영화에 대한 기호학적 분석을 마친 뒤에는, 분석의 결과가 오늘날 우리 사회에 무엇을 시사하는지에 대해 논의하며 글을 맺으려 한다.

II. 본론

1. 영화 『책 도둑』에 나타나는 분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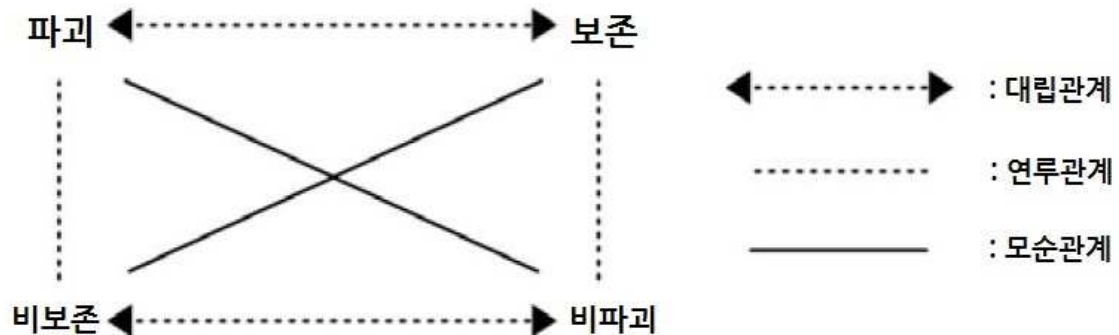
이야기의 배경은 1930년대 후반 나치 치하의 독일이다. 주인공은 어느 가난한 독일인 부부의 가정에 입양된 소녀 리젤 메밍거이다. 양부모인 한스와 로사 후버만, 이웃집의 한 반 친구 루디 슈타이너, 그리고 한동안 지하실에 숨겨 주어야 했던 유대인 청년 막스 반덴부르크가 주요 인물들이다. 주인공 리젤의 어머니는 공산주의자로, 나치에 쫓겨 리젤을 돌볼 수 없는 상황에 있다. 결국 리젤은 뮌헨의 몰헝이라는 작은 도시, 그 안에서도 가난한 마을 힘멜에 사는 양부모에게 입양된다. 아버지 한스 후버만은 나치 입당을 거부하는 바람에 제대로 된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고, 부인이 빨래를 해가며 근근히 살아가고 있다. 그러나 남을 배려할 줄 아는 따뜻한 사람이다. 그는 호기심 많은 리젤을 위해 책들을 읽어 주며, 글을 가르친다.

이제 공공 분서를 하는 장면이 등장한다. 광장에 시민들이 모여 있고, 나치 군복을 입은 몰헝 시의 시장이 연설을 하며 외친다. 도덕적으로 우리 자신을 깨끗이 하기 위해 불온하고 무가치한 지식을 버리고 사회에 해가 되는 책을 모두 불태우자고. 주민들이 구호를 외치며 동조하고, 어린 리젤도 군중에 잠시 동조하는 모습을 보인다. 그러던 중 시장은 “우리의 적, 공산주의자에게 죽음을!”이라 외치고, 어머니가 공산주의자임을 눈치 채고 있던 리젤의 표정이 굳는다. 군중의 환호 속에 책들은 불길 속에 던져지고, 히틀러를 향한 만세와 우렁찬 독일 국가가 울려 퍼진다. 집회가 끝나고, 리젤은 아직 불길이 남은 잿더미에서 책을 한 권 훔친다.



[그림3] 『책 도둑』의 분서 장면.

이 지점에서, 기호사각형을 통해 ‘책에 대한 인물들의 태도’를 기호사각형을 통해 분석해 보도록 한다. 분서 행위는 책 /파괴/의 의미를 내포하고, 이에 대립하는 리젤의 ‘책 훔치기’는 /보존/을 내포한다. 아래의 [그림4]가 나타내듯, /파괴/와 /보존/은 대립 관계, /비파괴/와 /비보존/은 하위 대립 관계를 이루고, 사선으로 표현된 /보존/과 /비보존/, /파괴/와 /비파괴/는 모순관계에 있다. 또한, 수직 점선으로 표현된 /파괴/와 /비보존/, /보존/과 /비파괴/는 연루관계(또는 내포관계)에 있다.



[그림 4] 기호사각형 : ‘책에 대한 태도’를 중심으로

나치의 행위는 시종 /파괴/와 /비보존/에 머무르며 분서행위의 주체로 고정된다. 그런데 리젤의 경우, 처음에는 나치의 구호를 무의식적으로 따라하기도 하고, 불타는 책들을 보며 미소를 보이기도 한다. 이 때 리젤은 /비보존/의 위치에 있다. 그러나 공산주의자의 제거를 주장하는 시장의 말을 듣고, 불타는 책들과 리젤의 엄마 사이에 동일시가 일어났을 것이다. 이후 책을 훔치고 그것을 읽는 과정, 또 이후에 시장 집의 빨래 심부름을 하며 주기적으로 책을 훔치기까지 리젤의 행위는 /비파괴/를 거쳐 /보존/의 의소를 구비한다.

이제는 분서를 둘러싼 인물들 간의 관계를 행위소 모형을 통해 아래 그림처럼 분석해볼 수 있다. 이 부분에서는 주인공 리젤을 주체로 두기보다는, ‘분서’를 욕망의 대상으로 하여 몰형 시장을 필두로 한 나치 당원들을 주체로 설정해 보았다. 그렇다면 책을 훔쳐 보존하는 리젤은 소극적이기는 하나 적대자가 된다. 조력자는 이에 동조하는 다수의 시민들이 된다. 그런데 여기서 발송자와 수령자는 겉으로 드러나는 영화적 등장인물이 아니다. 분서 행위를 ‘하게 하는’ 양태성을 갖는 행위자, 즉 발송자는 영화에 등장하지 않는 히틀러다. 이는 국가사회주의라는 이데올로기로 환원시킬 수도 있다. 수령자는 발송자가 보낸 대상을 수령하는 행위소인데, 본 분석에서는 ‘책 태우기’라는 행위를 대상으로 상정했기 때문에 행위를 받는 대상은 ‘책들’이어야 하나, 분서 행위의 사회적 의미와 영향에 집중하기 위해 수령자를 영화의 서사적 배경이자 분서 행위의 배경인 ‘몰형 시’라는 사회적 범위로 지정했고, 이는 나치즘이 영향을 미치는 독일 전역으로 확대 적용할 수 있으므로 아래 도식처럼 ‘국가’로 분석하기로 했다.⁶⁾



[그림 5] 행위소 모델 : 분서를 대상으로 (책 도둑)

2. 영화 『화씨 451』에 나타나는 분서

화씨 451도는 종이에 발화(發火)가 일어나 불에 타기 시작하는 온도를 뜻한다. 영화 속 세계는 책이 금지된 전체주의 사회로, 소방 시스템이 자동화되고 화재로부터 안전이 보장된 상황에서 소방관(fireman)은 원래의 역할을 잃고 책을 태우는 새로운 일을 수행하게 되었다. 여기서 주인공 몬태그는 승진을 앞둔 fireman으로 등장한다. 어느 때처럼 출근길에 오른 그에게 이웃집 여자 클래리스가 나타나 묻는다. “당신이 태운 책을 읽어 본 적이 있나요?” 이후 그는 남들 몰래 한 권 한 권 책을 숨겨 모으기 시작한다. 특히, 거대한 비밀 서고를 숨기고 있던 여인이 책과 함께 분신하는 것을 목격하면서 몬태그의 각성은 절정에 달한다. 그러던 중 아내 린다의 신고로 책들을 모아온 것을 들리게 되고, 집에 들이닥친 동료들과 갈등을 벌이다 자신에게 총을 겨누는 서장을 죽이고 도주한다. 그는 책을 지키며 숲 속에 숨어 사는 ‘책 옹호자’들의 집단에 합류하게 된다.

6) 행위소 모델을 통한 이 부분의 분석 방식은 아래 문헌들을 참고하였다.
 백화정, 「팩션 사극 영화의 서사구조와 영상미학」, 『문화 더하기 콘텐츠』, 2013
 송효섭, 『인문학, 기호학을 말하다』, 이숲, 2013, 150-160쪽.
 김태환, 「그레마스 행위소 모델 수용의 문제점」, 『동아대학교 독일학연구소』, 2001, 104-117쪽.



[그림 6] 『화씨 451』의 장면 ①



[그림 7] 『화씨 451』의 장면 ②

앞서 제시한 [그림 4]의 기호사각형을 통해 보면, 몬태그의 책에 대한 태도의 의소는 /파괴/에서 시작되어 /비파괴/를 거쳐 /보존/으로 이동한다. 이를 거치면서 /파괴/의 의소를 내포하는 fireman 동료들과의 갈등 관계가 발생하는데, 이를 행위소 모형을 통해 다음과 같이 분석할 수 있다. 이 부분에서도 역시 앞선 분석과 마찬가지로 주인공 몬태그보다는 firemen에 집중해 분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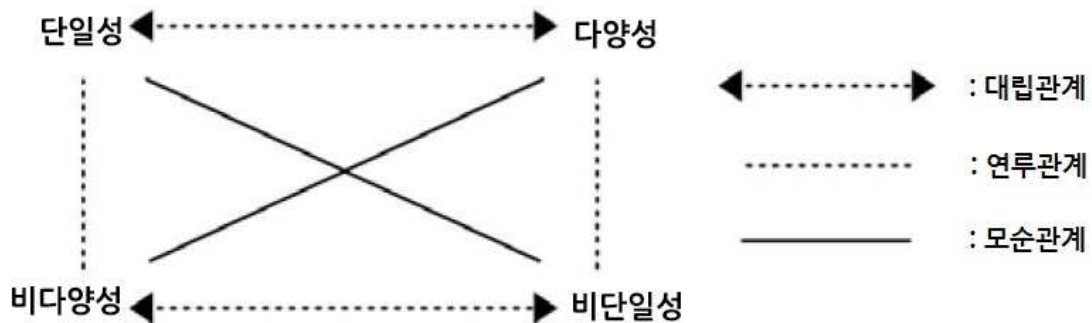
[그림 8] 행위소 모델 : 분서를 대상으로 (화씨 451)

위와 같이 ‘분서’라는 대상을 욕망하는 주체는 firemen이다. 발송자인 미래 사회의 시스템은, ‘안정성’이라는 가치를 firemen에게 전달하고 분서를 ‘하게 하는’ 행위소다. firemen의 리더인 서장은 “우리는 모두가 동등(equal)해져야 한다”고 일갈한다. 영화의 초반 몬태그도 주체로서 행위하는 요소였으나, 서사가 전개되면서 firemen으로부터 분리되어 적대자로 이동한다. 아내 린다는 몬태그를 신고하여 firemen을 돕는 조력자로 설정된다. 뿐만 아니라, 린다가 대표성을 갖기는 하지만, 조력자 행위소에는 『화씨 451』의 세계를 살아가는 대다수의 시민이 포함될 수 있다. 사회 안정이라는 가치(발송자)에 따라 firemen이 분서 행위를 하도록 동조하는 시민들은 몬태그를 사회의 위험 요소로 보고 적대시할 것이다. 책을 읽어 준 몬태그에게 불쾌감을 표시한 린다의 친구들이 이를 증명한다. 이렇게 영화 속 세계의 제도적 시스템은 다수 시민의 동의라는 전제하에 firemen으로 하여금 분서 행위를 하게 하는 발송자가 되고, 이는 수령자로서의 세계에 다시 환원되는 구조를 보인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앞선 『책 도둑』에서의 분석처럼, 분서 행위를 일회적으로 발생하는 개별적 사건이 아니라, 개별적 사건들의 총체 혹은 시스템으로서의 행위로 보기 때문에 가능하다.

3. 공통점 도출

지금까지 그레마스의 의미생성론, 특히 기호사각형과 행위소 모델에 입각하여 두 영화에 등장하는 분서 행위에 대해 분석했다. 두 영화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공통점을 도출하는 과정에서 주목할 부분은, 각 행위소 모형의 ‘발송자’에 해당하는 부분이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발송자는 주체로 하여금 대상을 ‘하게 하다’라는 양태 동사를 통해 그 양태성을 구현하는 행위소다. 따라서 특정한 ‘행위’를 대상으로 삼은 위의 분석에서, 발송자는 곧 각 주체들이 대상을 욕망하게 한 배경이자 목적을 의미할 수 있다. 즉, 각 분석의 발송자는 주체들(나치, firemen)이 분서 행위를 하도록 만든 목적과 상당한 연관 관계에 있다는 것이다. 이 단락에서는 바로 이 점에 주목하여, 분서 행위들에 드러난 공통된 목적성이 무엇인지 찾아내려 한다.

분석을 통해 두 사례에서 도출한 발송자는 ‘국가사회주의’와 미래 사회의 ‘극단적으로 안정된 시스템’이었다. 이들은 사회 구성원들이 다양한 생각을 갖는 것을 적대시하고 단일한 생각을 갖기를 지향한다는 공통점을 보였다. 나치의 전체주의가, 또 firemen의 서장이 대표하는 미래 사회의 주류 가치관이 이를 증명한다. 이렇게 도출된 공통점들을 의소(sème)의 형태로 추출하여 기호사각형을 통해 다음과 같이 관계화할 수 있다.



[그림 9] 기호사각형 : 두 영화의 발송자가 갖는 공통성

위 기호사각형의 대립관계를 형성하는 두 기본적 의소는 /단일성/과 /다양성/이다. 이와 동시에 /단일성/과 /비다양성/, /다양성/과 /비단일성/ 사이의 연루관계도 설정된다. 먼저 나치의 경우 사상의 다양성을 기피했다는 점에서는 /비다양성/을, 국가사회주의와 아리안계의 순수 민족주의 이념만을 독일 국민에게 주입하려 했다는 점에서는 /단일성/의 의소를 구비하고 있다. 『화씨 451』의 세계는 이보다 더 극단적이다. 모든 종류의 책을 제거하기를 지향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후자는 /비다양성/보다 /단일성/의 의소에 훨씬 더 집중돼 있다. 결과적으로, 위 기호사각형을 통해 분석한 두 사례의 공통점은 1. 단일성 지향, 2. 다양성 기피로 정리할 수 있다.

III. 결론

분서(焚書) 텍스트가 한국 사회에 시사하는 점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1930년대 독일의 공공 분서, 레이 브래드버리가 그린 미래 사회의 firemen 시스템까지 공적으로 책을 태우는 행위들의 목적은 단일성 추구하고 다양성 기피라는 측면에서 유사하다. 그리고 각각의 결과는 전쟁과 학살로 대표되는 전체주의의 비극과 비인간적 디스토피아 세계로 나타났음은 자명하다. 그렇다면 지금의 우리 사회와 공적인 분서 행위에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2015년 하반기, 한국사회를 가장 뜨겁게 달군 화두 중 하나는 바로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논쟁이다. 이 문제를 둘러싼 정치적 이해관계나 기타 사회·역사적 콘텍스트 등을 언급하려면 훨씬 더 많은 분량의 글을 할애해야 하므로 본 보고서에서는 그런 부분들은 차치하기로 하고, 본문에서 분석한 기호학적 내용과 관련 짓는 데 그치기로 했다.

최근의 언론 보도⁷⁾들이 전하는 내용을 통해, 교과서 국정화를 추진하는 정부와 여당, 이에 찬성하는 지지자들의 입장을 알 수 있다. 종합하면 이들의 입장이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단어를 찾을 수 있는데, 바로 ‘통합’이다. 국민 통합을 위해 국정화가 필요하다는 논리다. 이들의 논리를 앞선 분석과 연계하여 짚어보았다. 통합이라는 단어는 둘 이상의 것을 ‘하나’로 합친다는 것으로, 앞서 분서(焚書)행위의 기호를 분석하며 논의한 /단일성/과 /비다양성/이란 의소를 내포하는 단어로 볼 수 있다. 어떤 대상을 통합하여 하나로 만든다는 것은 대부분 그것을 관리하는 효율성에 대한 욕구에 근거한다. 따라서 ‘국민 통합’이라는 말에서 효율적인 ‘국민 통제’를 읽어내는 것이 단순한 기우는 아닐 것이다. 더욱이, 국정화를 통한 교과서 일원화는 ‘인문학 흔들기’이기도 하다. 흔히 인문학은 다양성이라는 토양에 뿌리를 내린다고 한다. 역사에 대한 다양한 학문적 기술들을 획일화하는 것은 분명 인문학 발전의 저해 요소다.

1933년 독일 공공 분서의 시작을 알렸던 베를린의 베벨 광장에는 현재 텅 빈 도서관이 하나 있다. 가로·세로 1m 정도의 유리를 통해 광장에서 내려다볼 수 있는 공간이다. 여기에는 시인 하인리히 하이네(Heinrich Heine)의 비극 『알만소르』에서 인용된 문장이 새겨져 있다.

*"Das war ein Vorspiel nur, dort wo man Bücher verbrennt,
verbrennt man am Ende auch Menschen."⁸⁾*

"이것은 전주곡에 불과하다. 책을 불태운 다음에는, 사람도 불태울 것이다."

하이네의 이 짧은 문장은 학문적 다양성에 대한 통제가 인문학(humanities)의 위기를 초래하며, 이는 곧 인간성(humanity)에 대한 위기로 이어질 수 있음에 대한 엄중한 경고다. 현재 우리 사회가 경각심을 가져야 할 지점이 바로 여기에 있다.

7) 각 기사의 링크는 IV.참고문헌에 제시

“국정교과서 역사 왜곡·미화 좌시 않을 것”, <중앙일보>, 2015.10.28.

새누리 “국정 대신 ‘올바른’ 역사 교과서로 부르자”, <조선일보>, 2015.10.12.

‘역사교육 정상화’, 사회적 지혜를 모으자, <조선일보>, 2015.11.02.

8) Wikipedia “Bebelplatz” 항목 : <https://en.wikipedia.org/wiki/Bebelplatz>

IV. 참고문헌

1. 단행본

사마천, 『사기열전』, 연변대학 고적연구소 역, 서해문집, 2006.

송효섭, 『인문학, 기호학을 말하다』, 이숲, 2013.

김운찬, 『현대기호학과 문화분석』, 열린책들, 2005.

송효섭, 『문화기호학』, 아르케, 2001

기호학연대, 『기호학으로 세상 읽기』, 소명출판, 2002

2. 논문

마정미 외, 「정치적 UCC 콘텐츠에 대한 기호학적 연구」, 『한국언론정보학보』, 2009

백화정, 「팩션 사극 영화의 서사구조와 영상미학」, 『문화 더하기 콘텐츠』, 2013

김태환, 「그레마스 행위소 모델 수용의 문제점」, 『동아대학교 독일학연구소』, 2001.

3. 웹 자료

“국정교과서 역사 왜곡 · 미화 작시 않을 것”, <중앙일보>, 2015.10.28.

: <http://news.joins.com/article/18949693>

새누리 ”국정 대신 ‘올바른’ 역사 교과서로 부르자“, <조선일보>, 2015.10.12.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5/10/12/2015101200896.html

‘역사교육 정상화’, 사회적 지혜를 모으자, <조선일보>, 2015.11.02.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5/11/01/2015110101980.html

EBS 지식채널e 〈하이네의 경고〉 : <http://tvcast.naver.com/v/627820>

Wikipedia Article “Bebelplatz” : <https://en.wikipedia.org/wiki/Bebelplatz>